

기쿠치 계곡에 서식하는 어류

기쿠치 계곡의 차갑고 맑은 물에는 두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한다. **산천어**는 연어과 물고기인 송어가 바다로 내려가지 않고 강에 남은 종류로서 빨리 헤엄치며 몸길이가 최대 35 센티미터까지 자란다. 겁이 많은 성격으로서 경계심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낚시 금지 구역인 계곡의 연못을 한가롭게 미끄러지듯이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산천어는 계곡의 긴 쪽 산책로 너머에 있는 히로카와라에서 알을 낳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 눈에 많이 띄는 것도 이곳이다. 계곡 주변의 음식점에서는 산천어 소금구이를 먹을 수 있는데, 이 산천어는 근처 양식장에서 들여오고 있다.

산천어에 비해 **버들치**는 꽤 작고 계곡에서 제법 많이 볼 수 있다. 녹색이 도는 금색에 배가 희고, 몸길이는 10 센티미터 정도로서 서일본의 차가운 강 상류 지역에 서식한다. 산간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일상적으로 먹어왔으나 특별히 맛있는 물고기로 보지는 않는다. 산천어와 마찬가지로 히로카와라 주변에서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다.